



# “창립 100주년 되는 그날을 위해...”

## 민족사

“민족사’ 불서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중 민족사에서 나온 책 한 번 읽어보지 않은 독자가 있을까. 30년에 달하는 세월, 은근하게 길러진 저력을 바탕으로 불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민족사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윤창화 사장이다. 저자로서, 출판인으로서 왕성하게 불교를 알리고 있는 윤 사장은 민족사 못지않게 불교계에서 유명한 존재다. 출판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깨끗함, 소신을 굽히지 않는 윤 사장으로부터 민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 민족사에는 윤 사장을 포함해 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총 450종의 책을 발간했고 한 해 15종 이상 출간하는 출판사치고는 규모가 크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족사는 역사와 전통, 윤 사장의 소신과 철학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규모로 판단할 만한 곳이 아님은 분명하다.

민족사는 1980년 5월 태어났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열기로 들끓었던 때, 민족사는 불서출판계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민족사’가 불서출판사 이름 같진 않지요. 처음에는 소위 ‘빨간 책(금서)’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를 차렸거든요. 민족사는 불교사회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로 첫 발을 뒀습니다.”

윤 사장이 출판사 이름에 ‘민족’을 붙여야 했던 이유는 또 있다. 당시 윤 사장의 마음에는 만해 스님이 1930년대에 쓴 산문 속 민족의식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만해 스님을 존경했던 윤 사장은 불교에서도 사회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만든 책도 <불교의 사회사상>(여익구 저)이었다. 하지만 불교사회과학 서적은 출간되는 족족 ‘판매금지’ 조치됐다.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윤 사장에게 방향 전환이 시급했다.

“필자 발굴이 잘 됐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고 나갔을 텐데, 당시에는 글 쓰는 사람들도 걸핏하면 잡혀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회과학 서적은 절교 ‘장기적 안목’을 갖자’고 결심했지요.”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그는 ‘지식 불교’에 뜻을 두게 됐다. 그렇게 길을 정하니 개론서 이상의 전문서적이 출간돼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이 때부터 ‘학술총서’와 ‘깨달음총서’ 등이 기획됐다. 민족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윤 사장은 출판인으로서의 생각이 확고하다. 출판도 자신의 소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손대지 않는다. 스스로 이를 두고 ‘별스럽다’고 표현한다. “불서출판인은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불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든 교양을 담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어긋나는 출판물을 만들면 스스로 무척 허무해집니다.”

그는 “교양을 주지 않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니다”고 단언한다. 그런 윤 사장이 출판인으로서 특히 참을 수 없어 하는 부분은 용어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선행되지 않은 현재 불교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불자들이 불자다운 소양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는 불교를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도 한글로 받아들이기 쉽게, 구



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 라이판 불자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죠.”

윤 사장은 자신이 지은 책 <내 마음을 치다>에서 불교용어 정리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불교를 설명할 때 자주쓰이는 ‘번뇌’ ‘화두’ ‘선’ ‘만다라’ ‘결망’ 등 108개의 단어를 뽑아 위트와 감성을 섞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약 5년 전부터 사전을 찾아가며 불교 용어를 조사하고 생활 속에서 잘나오며 떠오르는 반짝이는 언어를 메모해왔던 그의 습관과 의지가 녹아있다. 우리말로 가슴에 ‘탁’ 하고 와 닿게 하는 것. 그는 그것이 진정한 불교를 알리는 길이라 여긴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윤 사장은 요즘 ‘왕초보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왕초보 시리즈’는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불자들에게 전문가

## 만해 스님 산문집 읽고 민족의식 확립 “교양을 주지 않는 책은 좋은책 아니다”

필진이 알기 쉽게 불교를 설명하는 책들이다. 쉬운 입문서를 원했던 독자들이 무척 좋아한다는 귀뜸이다. 총 14권 출판을 목표로 제작 중인데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와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가 이미 출간됐다. 5월 중에는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도 만나볼 수 있다. 내년까지 ‘화엄경 박사’, ‘법화경 박사’ 등 나머지 왕초보 시리즈를 모두 출간할 계획이다.

현재를 봤더니 슬슬 민족사의 ‘내일’이 궁금해진다. 민족사는 미래에 어떤 출판사로 자리하고 있을까.

“저는 민족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의 가치와 무게가 출판사의 모든 것을 밀어주지요.”

100주년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족사가 보여준 길, 끊임없이 불자들의 의식을 두드러왔던 정신을 생각한다면 ‘100년 된 민족사’의 모습은 어렵잖게 떠오른다. 시대와 소통하면서도 불교 정신, 불서 출판의 기본과 철학을 지켜나가는 소신 있는 출판사 말이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민족사 불서 BEST 20

순위	도서명	지은이	순위	도서명	지은이
1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정성분	11	한글화엄경전 12권	무비 스님
2	무아 윤회 문제의 연구	윤호진	12	기쁨을 짓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3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김광식	13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석지현·윤창화·일지
4	화엄경사상 연구	이도업	14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야기	김윤수
5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	김상현	15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성범
6	대승경전과 선	김홍성	16	간추린 불교상식 100문 100답	정성석
7	주자의 선불교 비판 연구	윤영해	17	동안거	현성
8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상·하	이별교	18	리마야나	주해신 역
9	한국불교 100년 사진집	김광식·윤창화	19	마하비라타	주해신 역
10	백암록 완역전 5권	석지현 역	20	작은책 시리즈총 23종	-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NAVER 2년이상 마미로봇을 써본 사람

## 소원성취 원불봉안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는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들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조상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봉안발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담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불사·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페: 대음[해광스님])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락마을 앞  
2. 상동신도시 사거리 비산티움 뒤 상 3동 사무소, 119소방센터 맞은 편

옥불제작 : 옥예원 011-347-0085

www.insammaket.com

귀하고 고마운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취급품목 : 홍삼액, 홍삼정, 홍삼편, 인삼, 홍삼청국장, 캔디, 제리, 분말

홍삼생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 : gin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갈김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합니다. 즉 인삼껍질의 바로 안쪽에 많은 망상조직이 존재하는데 홍삼은 이와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적되어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런 홍삼을 액기스 추출과정에 90℃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검은색을 띠나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울렁거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저희 풍기정품인삼제조장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영농법인풍기정품인삼제조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636-2174 FAX 054)638-2177

## 인삼마켓

취급품목 : 홍삼액, 홍삼정, 홍삼편, 인삼, 홍삼청국장, 캔디, 제리, 분말

홍삼생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 : gin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갈김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합니다. 즉 인삼껍질의 바로 안쪽에 많은 망상조직이 존재하는데 홍삼은 이와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적되어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런 홍삼을 액기스 추출과정에 90℃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검은색을 띠나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울렁거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저희 풍기정품인삼제조장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영농법인풍기정품인삼제조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636-2174 FAX 054)638-2177